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사로 입후보한 회원번호 38번 김미희 부회장입니다.

어느덧 KLPGA에 입문한 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상별위원으로 시작해서 이사, 감사, 상별위원장, 전무이사직을 경험하였고, 지난해부터 협회 상근 부회장직으로 선임되어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또한, 태국 현지에서 CEO로 골프장을 10여 년간 이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의 행정적인 실무 경험과 더불어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저는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골퍼로서 그리고,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여하고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협회에서의 다양한 수익사업 확충,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회원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협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방송중계료 수입입니다.

이 중계권 사업 아이디어를 전무이사 시절에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여 협회와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회장직에 선임되면서 드림, 점프, 챔피언스 투어가 개최 되는 곳이면 무조건 대회 골프장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대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투어 회원 선수들을 일일이 만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거나, 선수들의 편의를 개선하였고, 스폰서 유치를 위해 직접 두발로 뛰고 움직였습니다.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또한, 회원 전용복지몰 구축과, 회원 혜택 제휴사 확대, 출산 장려금, 장례 지원 등 회원들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협회 행정가, 사업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두루 거친 제가 어떤 후보보다도 협회의 확실할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성명 : 김 미 회 